

현대중공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노동자 죽여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 사고 크레인 잦은 오작동, 사측 수리 요구 외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둔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72번째 죽음이다.

1월 24일 가공소조립부 2공장에

서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t짜리 선박 블록을 팔레트에 쌓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이 낡은 크레인의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금속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월 26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현중 자본이 현장에 기본 안전조치만 했더라면 죽지 않을 목숨이었다”라며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는 날이다.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사고는 재벌의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때문에 발생



했다. 정비예산이 줄고 인원이 줄어 발생한 사고다”라고 규탄했다. 현중은 크레인 정비업무를 ‘모스’라는 자회사로 분사했고, 자회사 모스는 아래에 하청을 만들었다.

최기철 부지부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모스의 하청업체는 현장점검 와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라면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바꿔야 중대재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울산운동본부는 “현중 자본이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 노동자가 매년 열 명꼴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현중은 ‘안전 최우선, 제1 경영 방침’을 떠들지만, 돈 들고 시간 든다며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조차 없다”라고 규탄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최근 사측에 사고 크레인이 잦은 롤링과 오작동한다며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

다. 사측은 리모컨 조작 버튼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상태에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사측은 크레인 표준작업 지도서에 주행 중 비정상 상태를 확인하면 작업을 즉

시 중지하고, 문제 사항을 확인하라고 명시한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노동부에 ▲중대재해 책임자 즉각 구속, 처벌 ▲전체 크레인 작업중지 확대, 전수 조사시행 ▲사고 크레인 안전검사업체 자격 취소, 처벌 ▲현대중공업 근로감독관 상주 ▲특별근로감독 실시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치료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현중 자본에 ▲대표이사 공개사과 ▲중장비 분사 철회 ▲크레인 업무 2인 1조 작업 보장 ▲유해 위험성평가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와 울산운동본부는 노동부 울산지청장 면담에서 노동부가 현중 자본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숨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투쟁은 금속노조 투쟁”

위원장, 노조 비정규대표자들과 만나 ... “일반예산 모자라면 투쟁기금 결의해서 싸운다”

“해당 단위 당사자들만 모여서 하는 투쟁하지 않겠다. 비정규직·복수노조 문제 해결 투쟁을 금속노조 과제로 삼아 노조의 투쟁으로 만들겠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25일 12기 1차 노조 비정규대표자 회의에 앞서 비정규직 단위 대표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위원장은 현재 정권과 자본이 회사 방식 등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꼼수를 강행하고, 대법원이 불법과건 판결을 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이 비정규직·간접고용 관련 투쟁을 조직할 시기다” 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평소에 금속노조 대공장 안의 하청노동자 조직사업부터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라며,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불법과건 불법행위 쟁점화 투쟁 등을 조직할 수 있다고 밝

혔다. 위원장은 금속노조 2022년 하반기 20만 총파업에 비정규직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재벌의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 비정규대표자들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관련 기조가 다른 현대모비스 등 단위를 지도해야 한다 ▲직접고용 관련 노조의 기준이 없다 ▲비정규사업을 실 단위로 확대해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 ▲완성차지부 교육에 불법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조선산업 정책·투쟁·조선노연 관련 논의 시 거통고지회 등 조선하청 단위를 논의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의에 비정규 단위가 참여해야



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생명 지키기, 작업중지권 확대, 위험작업거부권 확보 관련 노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직접고용 투쟁 등 비정규직을 둘러싼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련 투쟁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일반예산이 모자라면 투쟁기금을 결의해서라도 싸우겠다” 라고 약속했다.

“사측 일방통행 노사상생 단호히 거부한다”

25일, 한국지엠지부 이취임식 ... 위원장, “김준오 지부장과 20만 총파업 조직한다”

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월 2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26·27대 지부장·임원 이취임식’ 을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제조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20만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김준오 집행부와 함께 금속노조는

430만 제조업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겠다” 라고 선언했다.

김준오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취임사에서 “노사상생을 외면하지 않겠지만, 사측의 일방통행 노사상생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라면서 “현장과 함께 울고 웃는 열린 집행과 단결한 투쟁으로 한국지엠의

미래를 만드는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김준오 한국지엠지부장은 이날 이취임식을 마치고,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과 30여 분 동안 만나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지엠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